

청년 레즈비언 ‘부치’ 수행의 해석*

송우인**

| 목차 |

- | | |
|---|-----------------------------------|
| 1. 들어가며 | 3. 한국 레즈비언 문화에서의 부치 경험 |
| 2. 선행연구와 연구 방법 | 1) 부치의 수행적 구성
: ‘애티튜드’와 관계적 실천 |
| 1) 톰보이와 부치
: 여성의 남성성의 역사적 맥락 | 2) 부치의 경계 작업 |
| 2) ‘바지씨’와 ‘부치’
: 한국 레즈비언 공동체 속 여성의 남성성의 계보 | 3) 부치의 존재론적 재배치
: 원본 없는 남성성 |
| 3) 젠더 수행성과 여성의 남성성 | 4. 나가며 |
| 4) 연구대상 및 방법 | |

| 초록 |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 레즈비언 문화에서 ‘부치’라는 범주가 어떠한 의미와 수행을 통해 구성되는지를 탐구한다. ‘부치’를 단순히 ‘남성적인 레즈비언’으로 환원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며, 실제 레즈비언 하위문화에서 유통되는 언어와 실천은 훨씬 더 다층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우선 본 연구는 서구와 한국에서 레즈비언 공동체 속 여성의 남성성이 어떻게 재현되어 왔는지를 검토한다. 1960~70년대 ‘바지씨’라는 호명에서부터 1990년대 이후 서구적 용어 ‘부치’의 도입,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이후 세분화된 명칭의 등장까지를 역사적·

* 이 논문은 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사려 깊은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sowooiny@snu.ac.kr

문화적 맥락 속에서 추적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온라인 페미니즘과 레즈비언 커뮤니티 담론의 재편을 경험한 20~30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 시기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새로운 명명 체계가 등장하고, '한남 부치' 비판이 형성되는 등 정체성을 둘러싼 집단적 협상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부치 수행의 구체적 양상을 분석한 결과, 부치다움은 짧은 머리카락이나 남성복과 같은 외형적 표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외형적 요소를 포함하되 그것을 넘어, 관계의 장면 속에서 발휘되는 배려·안심·존중의 태도, 즉 '애티튜드', 그리고 상대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존재로서의 윤리인 '깍'을 통해 '부치처럼 느껴지게 하는 효과'가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이론적 기여를 제시한다.

첫째, 부치다움은 외형적 표상이나 스타일에 의해 고정되지 않으며, 관계 속에서 감각되고 구성되는 실천임을 보여준다. '애티튜드'와 '깍'은 젠더 수행이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감각임을 드러낸다.

둘째, '한남 부치' 담론은 레즈비언 공동체가 남성성을 단순히 모방하기보다, 돌봄의 윤리와 결합된 대안적 남성성을 구성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셋째, '꾸러기 부치', '긴머부' 등의 명명 실천을 통해 레즈비언 공동체가 정체성과 관계를 조직하고 협상해 나가는 과정을 드러낸다.

이러한 논의는 부치를 단일한 정체성이 아니라, 외형·수행·느낌·관계가 교차하는 복합적 장으로 이해해야 함을 보여주며, 한국 레즈비언 문화 속 젠더 규범 전복과 자기명명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학계에 이론적 도구를 제공할 뿐 아니라, 레즈비언 공동체에 자기 정당화의 언어를 돌려준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부치, 레즈비언 하위문화, 젠더 수행성, 한국 레즈비언, 여성의 남성성

1. 들어가며

최근 한국 온라인 콘텐츠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 가운데 하나는 여성 코미디언 엄지윤이 유튜브 채널 〈엄지렐라〉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선보인 이른바 '엄지훈남' 콘텐츠다. 그는 짧은 머리와 단정한 안경, 도시적 세련

미가 묻어나는 의상을 갖추고 시스젠더 남성의 이미지를 패러디한다. 특히 여성을 과잉보호하거나 대신 계산하는 등 이성애 관계에서 기대되는 배려, 그리고 근육을 드러내는 신체적 과시 등 과장된 남성성을 연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장면은 희화적 효과를 낳으면서도 동시에 여성 시청자들로부터 호감과 설렘을 이끌어냈다. 실제 온라인 반응 속에는 “설렌다”, “부치 같다”와 같은 평가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는데(도우리, 2025, 한겨레21), 이는 레즈비언 공동체를 넘어 대중들 또한 여성의 특정한 남성적 태도와 스타일을 ‘부치’와 연결짓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엄지훈의 연기는 남성성이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반복 가능하고 전유 가능한 수행임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엄지훈남’이라는 캐릭터는 남성성이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문화적 장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엄지훈남’ 캐릭터를 레즈비언 공동체 내부에서 오래 사용되어 온 ‘부치(butch)’ 개념과 직접적으로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여성의 몸을 매개로 남성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오래된 질문을 제기한다: “부치란 무엇인가?” 부치라는 존재는 단순히 ‘남성적인 외모를 한 레즈비언’을 가리키는 협소한 정의만으로는 결코 충분히 포착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적 층위 속에서 더욱 풍부하게 읽힌다.

그렇다면 엄지훈남의 어떤 제스처와 태도가 수용지들로 하여금 ‘부치 같다’고 느끼게 만든 것일까? 나아가 ‘부치’라는 이름은 오늘날 한국 레즈비언 공동체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해석되며, 실천되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은 단지 용어의 정의가 아니라, 젠더 규범의 교란, 욕망의 구조, 그리고 감각적 경험의 장면에 걸쳐 있는 질문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한국 레즈비언 공동체에서 부치가 어떻게 재현되고 실천되는지를 탐구하면서, 이를 단일한 정체성 범주로 환원하지 않고 그 수행적·정동적 차원을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 레즈비언 문화에서 ‘부치’라는 범주가 어떠한 의

미와 수행을 통해 구성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 레즈비언 문화에서 '부치'라는 범주가 어떠한 의미와 수행을 통해 구성되는지를 밝히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부치다움은 어떻게 외형적 표상을 넘어 관계적 감각으로 수행되는가?

둘째, '한남 부치' 담론은 공동체 내부에서 어떤 윤리적 재구성을 만들어 내는가?

셋째, 새로운 명명들은 부치 정체성의 감각과 수행 방식을 어떻게 재조직하는가?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부치'를 단일한 정체성이 아닌, 관계적 윤리와 감각의 실천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를 부치로 정체화하거나 부치로 인식되는 이들의 살아 있는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부치 수행이 외형적 표지에 한정되지 않고 관계의 장면 속에서 드러나는 배려·안심·존중의 태도, 즉 '애티튜드'와 '깁'의 윤리를 통해 구성된다는 점을 탐색한다.

연구 참여자는 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온라인 페미니즘과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담론적 변화를 경험한 20~30대 여성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일명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설명하고 정당화해야 했던 세대로, 그들의 말하기에는 자신을 어떻게 '부치'로 부르거나 부르지 않을지를 둘러싼 성찰과 망설임의 서사가 스며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부치'를 정체성의 이름이자 동시에 수행적·정동적 장면으로 사유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감각되고, 명명되고, 다시 변주되는지를 다층적으로 탐색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부치가 단순히 남성을 '흉내 내는' 존재가 아니라, 젠더 규범을 교란하고 재구성하는 실천의 장을 열어가는 주체임을 밝히고자 한다.

2. 선행연구와 연구 방법

1) 톰보이와 부치: 여성의 남성성의 역사적 맥락

서구 사회에서 톰보이(tomboy)와 부치(butch)는 여성의 남성성을 둘러싼 서로 다른 맥락을 보여주는 개념으로 자리해 왔다. 우선, 톰보이는 16세기 영국에서 이미 “버릇없는 소녀”라는 부정적 뉘앙스로 쓰였으며, 19세기 말~20세기 초 미국에서는 “남자아이처럼 행동하는 소녀”라는 의미로 통용되었다(Abate, 2008). 20세기 초 미국 사회에서 톰보이는 활달함, 장난스러움, 스포츠 참여 등 소녀기의 일시적 남성성을 설명하는 긍정적 기표로도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아동기·청소년기에 한정된 수행으로만 용인되었으며, 성인 여성에게 지속되는 남성성은 규범적으로 금지되었다. 다시 말해, 톰보이는 잠시 허용된 소녀기의 남성성 수행을 지시했을 뿐, 결국 ‘여성다움’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전제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부치는 20세기 초 미국 속어에서 butcher boy의 줄임말로 ‘터프한 아이’를 뜻하거나, 짧은 스포츠형 머리인 butch cut을 지칭하는 표현에서 비롯되었다(Faderman, 1991).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부치는 노동자 계급 레즈비언 공동체에서 남성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을 지시하는 은어로 자리 잡았다. 특히 대도시의 바(bar) 문화 속에서 부치는 펌(femme)과의 관계적 위치성을 통해 공동체적 정체성을 구성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치 - 펌 관계가 단순한 “역할 분담”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네슬(Nestle, 1987)은 1950년대 미국 레즈비언 바 문화에서 부치 - 펌 관계가 욕망, 돌봄, 경제, 안전을 조직하는 관계적 체계였음을 강조한다. 부치는 펌을 위해 문을 열어주고, 먼저 계산하고, 바깥세상의 위협을 감당했다. 이는 단순히 남성 역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억압적 사회 질서 속에서 친밀성과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실

천이었다. 다시 말해, 부치로 산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안전과 돌봄을 설계하는 일이었다. 이처럼 톰보이가 '성장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된 소녀기의 남성성'을 지시했다면, 부치는 '성인 여성 하위문화 속에서 관계적으로 수행된 남성성'을 가리켰다. 즉 여성의 남성성은 연령과 계급, 공동체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의미화되었다.

1950년대 미국의 레즈비언 바(bar) 문화에서 부치 - 펠 관계는 공동체의 기본 틀로 기능했다(Cartier, 2005). 다만 페이더먼(Faderman, 1991)은 이러한 바 문화가 레즈비언 하위문화의 전부는 아니며, 인종·계급·세대에 따라 그 양상이 달랐음을 지적한다. 부치 - 펠 관계는 복합적 성격을 지녔다. 네슬(Nestle, 1987)은 부치의 스타일을 단순한 남성 모방이 아니라 "본능적 끌림에 따른 재현"으로 설명하며, 이것이 자발적 욕망의 표현이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페이더먼(Faderman, 1991)은 당시 레즈비언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시성을 얻고 공동체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부치 - 펠이라는 인식 가능한 틀을 따라야 했다고 지적한다. 즉, 부치 - 펠 관계는 개인의 욕망과 친밀성을 조직하는 공동체적 유대인 동시에, 일정한 규범적 압력을 동반한 체제이기도 했다.

2) '바지씨'와 '부치': 한국 레즈비언 공동체 속 여성의 남성성의 계보

한국에서 '부치(butch)'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이전, 남성적 레즈비언들은 주로 '바지씨'라 불렸다. '바지씨'란 말 그대로 바지를 입고 사회적으로 남성 혹은 가장의 역할을 수행한 레즈비언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다. 전해성(1996)은 1960~70년대 전국적 규모의 모임 <여운회> 기록을 통해 '바지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한다. 당시 바지씨들은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거나 집안 대소사를 책임지는 등, 사회적으로 남성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담당했다. 닷페이스 영상에서 윤김명우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한다.

“요즘 애들은 누가 가장이니 이런 거 안 나뉘.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그런데 우리(바지씨)는 100% 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줬잖아. 설거지는 치마씨가 해야 하고.” (윤김명우, 닷페이스, 2019.10.30.)

또 다른 증언자 영수(가명) 역시 당시 직업 선택의 제약 속에서 운전이나 주방일이 주요 생계수단이었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직장) 구해봤자 직장 갖기도 힘들었어, 그때는. 아주 곤란했어. 그래서 운전 아니면 할 게 없어, 솔직하게 말하면. 아니면 어디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 일을 하거나.” (영수, 닷페이스, 2019.10.14.)

이러한 증언들은 바지씨가 단순히 ‘바지를 입는다’는 외형적 표지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경제적·실천적 책임을 담당하는 역할로 정의되었음을 보여준다.

루인·정희성(2019)은 이처럼 ‘여자의 몸으로 바지를 입는 행위’ 자체가 젠더 규범을 위반하는 불온한 행위였음을 지적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남자라고 부르지 않고 ‘바지씨’라 칭했기에, 오늘날의 트랜스젠더·젠더퀴어 개념과 구별되는 1970년대 특유의 정체성으로 볼 수 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치(butch)’와 ‘펍(femme)’이라는 서구의 용어가 한국 레즈비언 문화에 도입되기 시작한다. 이해술(1999)은 이러한 개념이 서구의 페미니즘 및 레즈비어리즘 이론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던 1990년대 초부터 함께 등장했다고 본다. 한국 레즈비언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정치화·이론화하며 새로운 범주와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한채윤(2009)은 잡지 《레인보우링》에서 ‘부치’와 ‘펍’이라는 용어의 등장을 직접 다루었다. 그는 1991년 주한 외국인 레즈비언 모임 ‘사포(Sappho)’와 그 후속인 1993년 〈초동회 草同會〉 결성을 계기로 외국인들과의 교류 속에서 부치·펍이라는 언어가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외국인 레즈비언과의 교류를 통해 서구적 정체성 용어가 한국에 유입되었고, 이를 계기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부치’와 ‘펍’이 점차 사용되기 시작했

다는 것이다. 비록 도입의 구체적인 시기와 경로에 대한 해석은 다소 엇갈리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부치'와 '팸'이 PC통신과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 레즈비언들 사이에서 널리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젠더 수행성과 여성의 남성성

본 연구는 한국 부치 실천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적 젠더 구성론, 수행성 이론, 그리고 감각과 감정의 층위를 다루는 이론을 통합한 틀을 마련한다. 먼저 남성성은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사회는 젠더에 대한 문화적 설명을 가지고 있지만, '남성성'이 항상 동일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성은 여성성과의 대비 속에서 의미를 얻으며, 관계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역사적으로도 18세기 이전 유럽에서 여성은 남성과 구분되었지만, 그 차이는 미완성 혹은 열등한 특성으로 규정되었다(코넬, 2013).

이러한 전제 위에서 버틀러(Butler)의 수행성 이론은 젠더를 본질이 아니라 반복적 수행의 효과로 본다(Butler 1990; 1993). 젠더는 “내면의 실체”가 밖으로 드러나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승인된 규범을 인용(citation)하고 반복(iteration)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보이는 효과다. 다시 말해 젠더는 단발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옷차림, 몸짓, 말투, 관계 맺기 등 일상적 실천의 축적을 통해 물질화(materialization)되는 규범의 산물이다(Butler 1993). 이 관점에서 남성성 역시 남성의 신체에 자연적으로 부착된 속성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만들어지는 수행적 결과다. 수행은 규범적 남성성과 같이 보이지만 항상 동일하지 않으며, 그 간극은 규범의 자연성을 의문에 부치게 한다. 특히 여성의 남성성은 규범을 인용하되 어긋나게 반복함으로써(mis-citation), 남성성의 소유·기원·자연성에 질문을 던진다(Butler 1990; 1993).

할버스탐(Halberstam)은 『여성의 남성성』(2015)에서 ‘남자 없는 남성

성', 곧 여성의 남성성을 본격적으로 조명한다. 그는 여성의 남성성을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의 남성성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울효과로 설명한다(Halberstam, 2015). 우리가 ‘남성성’이라 부르는 것은 특정한 기원이나 단일한 소유자를 갖지 않고, 다양한 신체와 맥락 속에서 증식(proliferation)한다. 이 점에서 여성의 남성성은 주변부가 아니라 남성성의 구성적 일부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여성의 남성성은 무시되거나 지워져 왔으며, 이러한 무관심은 남성성을 권력과 지배에 결합시키려는 사회 구조를 지탱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남성성은 꾸준히 존재해왔고, 근대적 남성성 형성에도 기여했다. 특히 레즈비언 하위문화에서 부치 - 펍 관계는 욕망, 돌봄, 경제, 안전의 분배를 조직하는 관계적 배치였으며, 그 안에서 드러나는 부치의 남성성은 단일한 양식이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과 실천으로 변주되어 왔다(Halberstam, 2015).

러빈(Rubin)은 이러한 논의를 공동체 내부의 언어와 경험 속으로 끌어온다. 그는 부치를 “여성적 코드보다 남성적 젠더 스타일과 정체성에 더 편안함을 느끼는 여성을 위한 레즈비언 어휘”로 정의하며, 때로는 선천적 정체성 범주로 작동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Rubin, 2015). 러빈은 부치가 젠더 위화감을 지닌 여성들에게 생득적인 레즈비언 범주이기도 함을 포착한다. 또한 그는 레즈비언 공동체 내부에 늘 존재하는 긴장과 차이에 주목하며, ‘여성으로 동일시하는 여성’이라는 정치적 미덕만을 앞세울 경우 이러한 차이가 억압·배제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그 결과 여성들의 성애와 섹슈얼리티가 지워지고, 단순히 ‘여성 간 사랑’이라는 담론만이 강조될 위험이 있다(Smith, 1989). 따라서 러빈은 부치가 폭넓은 젠더 변주를 아우르며 다양한 방식의 남성성을 재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단일한 여성 범주나 레즈비언 범주가 설정될 때 경계적 존재나 이행하는 존재가 배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ubin, 2015).

세지윅(Sedgwick)의 이론은 이러한 수행이 어떻게 체감되고 인지되는지를 설명한다. 『Touching Feeling』(2003)에서 그는 경험과 현실의 일부

는 명제적·언어적 진술로만 포착되지 않으며, feeling(감각/감정)의 층위에서 접촉과 반응으로 성립한다고 말한다. 세지웁에게 귀어함은 고정된 동일성이 아니라 경계와 범주를 교란하는 위치이며, 언어적 선언 이전의 느낌의 조직 속에서 드러난다. 이런 느낌은 개인의 심리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무대 배치, 시선의 흐름, 말 걸기 방식, 목소리 톤, 손의 위치 등 관계적 장면의 형식 속에서 공유된다. 따라서 '부치'는 "나는 부치다"라는 동일화 발화가 없어도, 복식·몸짓·대화법·배려의 기술이 만들어내는 설렘, 안심, 존중감의 구조를 통해 '부치처럼 느껴지는' 자리로 경험된다(Sedgwick 2003). 세지웁의 "주변-수행(periperformative/around the performative)" 개념은 명시적 수행문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의 발화·몸짓·응시·배치가 수행 효과를 받쳐주고 때로는 흔들며 증폭·변주하는 현상을 지시한다. 즉, '부치처럼 보이고 느껴지는 것'은 발화 그 자체가 아니라, 손을 내미는 타이밍, 먼저 계산하는 제스처 같은 주변 형식의 얽힘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 사회의 부치 실천은 모방이나 결핍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것은 젠더 규범을 창조적으로 인용하고 변주하는 관계적 수행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부치는 고정된 명시적 정체성이라기보다는 반복을 통해 가시화되는 효과이며, 누가, 언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수행하느냐에 따라 다른 감각과 의미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론적 틀은 3장에서 분석할 한국 레즈비언 공동체의 부치 경험—명명의 정치학('머 짧이' vs '부치'), 관계적 실천('애티튜드'와 '깁'), 경계 설정('한남 부치' 비판)—을 해석하는 렌즈로 작동한다.

1) '머리가 짧은'의 줄임말. 부치-뽀 구분은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외형만 기술하는 중립적 표현.

4) 연구대상 및 방법

이처럼 한국 레즈비언 문화에서 ‘부치’라는 용어가 자리 잡는 과정은 단순한 언어 차용을 넘어 새로운 정체성 범주의 형성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이제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부치’라는 이름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치로 정체화하거나 부치로 패싱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과 원격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한국 레즈비언 문화에서 ‘부치’라는 용어가 자리 잡는 과정은 단순한 언어의 차용을 넘어, 새로운 정체성 범주의 형성과 긴밀히 맞물려 있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의 변화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페미니즘 담론의 확산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를 경험한 세대는 ‘부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정당화해야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주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부치’라는 이름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는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분기점으로 온라인 페미니즘이 급속히 확산되던 시기에 청년기를 보낸 20~30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한 명의 50대 참여자를 포함하여 세대 간 비교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참여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교차 지점에서 레즈비언 정체성과 젠더 규범을 둘러싼 격렬한 담론의 변화를 직접 체험한 세대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개입해야 했다. 따라서 그들의 말하기에는 “왜 나는 부치라고 부르는가/부르지 않는가”, “부치와 다른 명명은 무엇이 다른가”와 같은 자기 성찰적 질문이 자연스럽게 스며 있으며, 이러한 발화는 정체성을 둘러싼 세대적 감각과 언어적 실천을 드러낸다.

연구자는 개인 SNS(X, 구 트위터)를 통해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리트윗 기능을 통해 모집 공고가 확산되면서 총 10명이 자원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두 레즈비언 공동체에 속한 경험이 있으며, 부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면접은 2022년 8월과 9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회당 1~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대면 면접은 총 8명과 연구 대상자의 거주지·학교·직장 인근 스튜디오에서 실시되었고, 2명은 연구자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줌(Zoom)을 통한 원격 면접으로 참여하였다.

면접 질문은 레즈비언 공동체 참여 여부, 부치 정체성, 젠더 표현, 정체화 과정, 커뮤니티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부치의 특징과 여성의 남성성에 관한 개인적 경험을 탐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모든 인터뷰는 익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의 기본 인적 사항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인터뷰 참여자 일반 특성

	이름	만 나이(2022년 기준)	정체화 범주	연구참여방법
사례1	스콘	30	부치/레즈비언	대면
사례2	수키	26	레즈비언	대면
사례3	숙자	26	퀘스처너리	대면
사례4	서아	32	레즈비언	대면
사례5	강	27	젠더퀴어	대면
사례6	이서	22	레즈비언	대면
사례7	망고	25	부치	비대면
사례8	개비	26	부치/레즈비언	대면
사례9	인성	26	부치/레즈비언	대면
사례10	지안	52	티부/레즈비언	비대면

3. 한국 레즈비언 문화에서의 부치 경험

1) 부치의 수행적 구성: ‘애티튜드²⁾’와 관계적 실천

‘남성적인 레즈비언’이라는 짧은 어구로 환원하기에는, 오늘날 부치라는 표상은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재현된다. 본 장에서는 최근 한국 20~30대 레즈비언들 사이에서 부치가 어떻게 인식되고 수행되며, 어떤 명칭과 감각의 체계를 통해 구분·소통되는지를 살핀다.

2010년대 중후반 이후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부치 - 펌 구도가 규범적 남성성/여성성을 답습한다는 비판이 재차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부치’라는 용어 사용을 기피하거나 금지어로 지정하는 사례도 나타났다(예: B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나 명명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기에, 사용자들은 정체성 범주를 우회하는 스타일 표지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 대안이 ‘머짧’이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에서는 ‘머짧’을 “머리가 짧은 스타일을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티부와는 의미가 다르며, 부치와 펌 성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적고 있다. 즉 ‘머짧’은 외형 정보만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욕망·역할·관계의 맥락은 의도적으로 비워둔 표식이다.

연구 참여자 망고는 ‘머짧’이 “부치와 단지 머리가 짧은 레즈비언을 구분하기 위한 말”이며, 그 뒤에는 ‘여자’라는 공통 범주를 전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어차피 뭐 그게 저는 약간 머짧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게 물론 잘 팔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성 사회에 속하고 싶어서 그러한 느낌도 좀 있거든요. 여성 주류사회, 여성 호모소셜 나는 여전히 속해 있어. 나는 머짧이지만 여전히 그런 주류사회에 속해 있고 나도 되게 친한

2) 애티튜드(attitude): 수행 이전의 의식적 결정보다는, 몸의 기억과 습관으로 자리한 몸의 경향성에 가깝다.

여자친구들 많아 이런 느낌으로. 나 되게 남자 같지 않아 이런 느낌인 거 같은데 저는 그걸 굳이 그렇게 어필해야 되나 싶고 그리고 저도, 저는 여성 주류사회에 못 섞였어요. 그래서 부치라고 말하는 게 훨씬 편해요. 나는 부치고 여성 사회에 못 섞였어. 그리고 너네 아마 그 펌들의 여성 호모소셜에도 못 섞일 거야라는 걸 일부러 강조해서 말을 해주고 싶거든요. 그게 더 편하고 저를 이해시키기가. 머짧이라고 했을 때 도대체 뭘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머리 길이 말고는. 저의 삶의 태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머짧 가지고는.” (망고)

망고의 진술은 '머짧'이 비정치적 스타일 표지로 기능하면서, '부치'가 갖는 역사·욕망·관계의 맥락을 삭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그는 더 나아가, 부치를 “여자 밖의 존재로 상상”하는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라리 스스로 부치라고 명명하여 갈등을 조기에 가시화·정리하려 한다고 말한다. 이는 '머짧'이 안전하고 무마적인 자기표현으로 소비되는 반면, '부치'는 경계·차이·역사를 호출하는 자기명명임을 시사한다. 정리하자면, '머짧'은 부치-펌 정치학의 직접적 논쟁을 우회하면서 여성 범주 내부에서 안전한 자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작동한다. 반대로 '부치'라는 자기명명은 역사·욕망·관계 규칙을 호출하며, 충돌과 경계를 수반하면서도 정체성의 두께를 보존한다. 이러한 명명의 정치학은 버틀러(1993)가 말한 '호명(interpellation)'과 '재명명(renaming)'의 긴장을 보여준다. '머짧'은 기표를 최소화함으로써 규범적 여성 범주 안에 머물려는 시도이며, '부치'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의미망을 적극적으로 인용(citation)함으로써 레즈비언 하위문화의 계보를 가시화하는 전략이다.

또한 '긴머부3)', '티부4)', '꾸러기 부치5)'와 같은 세분화된 명칭의 등장은

-
- 3) '긴 머리의 부치'. 외형적 젠더 표현(긴 머리)과 정체성(부치)이 불일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용어. 전통적으로 부치=짧은 머리 공식을 해체함.
 - 4) '티 나는 부치'. 이성에 규범적 맥락에서 즉시 식별 가능한 부치. 짧은 머리, 남성복 등 전통적 표지를 전면화함.
 - 5) 권위적이거나 마초적이지 않은, 발랄하고 순한 스타일의 부치를 지칭. 2010년대 후

헬버스탐(1998/2015)이 강조한 여성 남성성의 ‘증식(proliferation)’을 한국적 맥락에서 예증한다. 헬버스탐은 여성의 남성성이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과 실천으로 분기한다고 보았는데, 한국 레즈비언 공동체는 외형 규범(짧은 머리)과 수행 규칙(애티튜드)을 분리함으로써 부치범주의 내적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언어화하고 있다. 이는 부치가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협상되는 실천적 범주임을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 강은 최근 20대 초반 층에서 ‘부치의 스타일은 좋아하지만 정체성은 밝히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를 관찰하며, 그것이 ‘머짧’의 확산과 연결된다고 말한다. 동시에 그는 “머짧 펍들은 울겠네”라는 농담을 덧붙이며, ‘머짧’이라는 외형 표지만으로는 부치 - 펍 의 관계적 의미망을 충분히 기술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즉 머리 길이로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으며, 외형 표지의 동일성 아래 다른 관계 규칙과 느낌의 구조가 공존한다.

강은 또한 ‘긴머부’라는 용어를 예로 들며, 오늘날 부치가 외형 규범을 유연하게 전유함을 강조한다.

“부치를 좋아하지만 티 나면 안 되는 벽장 상황이면, 긴머부를 만나는 선택지도 있죠. 요즘은 그런 식으로도 부치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강)

실제로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치=짧은 머리’ 공식을 흔드는 긴 머리 부치는 비가시적이거나 예외적으로 취급되었다. 2011년 『레인보우링』 시즌3 2호의 「머리 긴 부치의 구인 광고」는 다음과 같이 쓴다.

“머리카락이 짧은 사람이 모두 부치는 아닌 것처럼, 모든 부치가 머리카락이 짧아야 하는 것도 아닌 것을.

이 이상한 공식이 언젠가부터 굉장히 당연시되어 ‘머리카락이 길면 어떻게 긴 머리카락으로 부치를 하느냐’는 당황스러운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중략)

당신이 내게 반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 머리카락이라는 장애물은 걷어차고 어서 내게로 달려오라, 나는 여기서 당신을 위해 두 팔을 벌리고 있으니.”

(레인보우링, 2호, 2011)

이 텍스트는 당시 '긴머부'가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했던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긴머부'가 선호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꾸러기 부치'처럼 권위적·마초적 클리셰를 벗어난 새로운 미감과 태도의 수식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부치는 짧은 머리나 가죽 재킷 같은 정형화된 외양을 넘어선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역설적으로 등장한 명칭이 바로 '티부(티 나는 부치)'다. '티가 난다'는 말은 이성애 규범의 배경에서 즉시 식별되는 퀴어함을 가리킨다. 오늘날 '부치'가 반드시 남성적 외모와 결부되지 않게 되면서, 오히려 짧은 머리·남성복·낮은 목소리 톤 등 전통적 표지를 전면화하는 유형을 별도로 지칭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즉, 부치라는 범주는 더 이상 외형 중심의 단일 규범이 아니다. 다양한 스타일, 관계 기술,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장면 연출을 통해 분기해 왔다. 그 과정에서 머짧, 긴머부, 티부, 꾸러기 부치 등 세분화된 명칭이 생겨났고, 이는 감각의 미세한 차이를 표기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긴머부', '티부', '꾸러기 부치'와 같은 세분화된 명칭의 등장은 헬버스탐(1998/2015)이 강조한 여성 남성성의 '증식(proliferation)'을 한국적 맥락에서 예증한다. 헬버스탐은 여성의 남성성이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과 실천으로 분기한다고 보았는데, 한국 레즈비언 공동체는 외형 규범(짧은 머리)과 수행 규칙(애티튜드)을 분리함으로써 부치 범주의 내적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언어화하고 있다. 이는 부치가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협상되는 실천적 범주임을 보여준다.

정리하자면, '머짧'은 부치 - 펍 정치학의 직접적 논쟁을 우회하면서 여

성 범주 내부에서 안전한 자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작동한다. 반대로 ‘부치’라는 자기명명은 역사·육망·관계 규칙을 호출하며, 충돌과 경계를 수반하면서도 정체성의 두께를 보존한다. 나아가 ‘긴머부’나 ‘티부’ 같은 파생 명칭은 오늘날 부치가 단순한 외형 규범이 아니라 ‘부치처럼 느껴지는’ 효과를 통해 인지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남성성을 남성의 전유물로 보지 않는 수행적 관점과도 맞닿아 있으며, 부치를 표지 목록이 아니라 수행 - 느낌 - 관계의 교차점으로 이해해야 함을 시사한다.

(1) 부치들의 ‘애티튜드’: 선제적 배려의 수행

오늘날 부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일한 외양 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 참여자 다수는 부치의 정체성을 특유의 애티튜드(attitude), 즉 여성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곧 수행으로 드러나는 태도에서 포착된다고 진술하였다. 표준적 의미의 ‘태도’를 넘어, 레즈비언 공동체에서 말하는 애티튜드는 상대 여성과 마주치는 장면에서 즉시 작동하는 수행적 규칙을 포함한다.

먼저, 참여자 스콘은 부치 인지를 “애티튜드의 감지”로 설명하며, 이는 후천적 기술이라기보다 “타고나는 속성”에 가깝다고 서술한다.

“저는 부치는 진짜로 태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을 만났을 때 느낀 건, 이 사람이 이길 수 없다.” (스콘)

스콘의 진술은 외양 우선의 분류를 뒤집는다. 자신이 더 남성적 외형을 지녔음에도, 상대의 애티튜드가 더 ‘부치스럽다’고 느끼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곧 부치니스가 보이는 것의 목록이 아니라 상황 반응의 일관된 양식으로 인지됨을 시사한다.

자신을 긴머부로 정체화한 참여자 이서 역시 외형보다 습관화된 배려의 실천에서 부치다움을 설명한다.

“여성분이 넘어지려 하면 허리를 붙잡고 ‘괜찮아요?’라고 묻거나, 옆에

흠어진 옷가지를 정리하는 걸 저는 자연스럽게 해요. 친구들은 그게 되게 부치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서)

여기서 애티튜드는 의도적 과시가 아니라 “손에 뺨 때너”로 묘사된다. 세지워(2003)은 수행이 명시적 발화문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몸짓·응시·침묵·타이밍을 통해 증폭된다고 본다. 이서가 “허리를 붙잡고 ‘괜찮아요?’라고 묻는” 장면은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손의 위치와 목소리 톤, 타이밍의 주변·수행적 양상불이다. 이 양상불이 ‘부치처럼 느껴지는’ 정동적 효과를 생산한다.

참여자 숙자도 같은 점을 지적한다.

“애써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인데, 그런 게 부치 아닌가?” (숙자)

요컨대 ‘애티튜드’란 배려의 마음가짐이 즉각적인 수행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장면의 안정화를 낳는 일종의 관계 설계 능력을 가리킨다. 스콘은 이를 더 나아가 “위험·무거움·수고를 먼저 감당하는 것”이라는 규칙으로 확장한다.

“다른 여자는 나보다 약할 것이라는… 그래서 무거운 것은 제가 들고, 망치질 같은 위험해 보이는 일은 제가 해요. 멋부림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 나와요.” (스콘)

이 진술은 부치 애티튜드가 장면의 위험과 노동을 선제적으로 인수해 상대에게 안심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조직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는 이성애 규범의 남성성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안전과 존중을 우선하는 새로운 규범으로 이해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스콘은 재생산과 임신처럼 흔히 ‘가장 여성적인 행위’로 분류되는 영역까지도 “힘든 일은 내가 한다”는 원칙으로 포섭한다.

“임신이 가능하다면 부치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힘든 건 부치가 한다는 태도 때문이죠. 그게 가장 여성적인 행위라 하더라도요.” (스콘)

이처럼 부치 애티튜드는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본질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책임과 배려의 분배 방식으로 재조정한다. 핵심은 역할의 성별화가 아니라 수행 규칙이다.

성적 관계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반복된다. 지안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부치들은 (성관계에서) ‘네가 먼저 가’라고 해요. 나는 나중에 가도 된다고. 그래서 편안하고 안심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안, 보조사례)

지안의 진술은 부치가 여성을 욕망하면서도 그것이 곧 도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대 우선’의 윤리를 전제로 삼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일부 시스젠더 이성애 남성들이 보여주는 ‘나 먼저’ 규칙과 선명히 대비되며, 부치 애티튜드를 배려·안심·존중의 감각으로 완결한다.

정리하자면, 부치의 애티튜드는 세 가지로 구조화된다. 첫째, 위험·수고·결제·동선 조율을 먼저 인수하는 선제적 배려. 둘째, 과시가 아니라 습관화된 매너로 드러나는 과시의 배제. 셋째, 친밀하거나 성적 장면에서 상대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상대 우선의 원칙이다. 이때 외형은 필수 조건이 아니다. 이러한 태도와 수행이야말로 ‘부치처럼 느껴지게 하는’ 장면의 표면으로 작동한다. 즉, 부치다움은 보이는 표지들의 합이 아니라 관계 장면을 어떻게 설계하고 유지하느냐에 의해 인지된다. 이는 젠더가 반복적 수행의 효과라는 관점과 맞닿아 있으며, 동일한 행위라 할지라도 누가, 언제, 어떤 관계 속에서 수행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감각과 의미가 산출됨을 보여준다.

(2) 관계적 ‘주기’의 윤리

레즈비언 하위문화에서는 ‘깁’, ‘텍’, ‘깁애크’이라는 은어가 사용된다. 이는 각각 영어 단어 give(주다), take(받다), give and take(주고 받다)를 한국식으로 변형한 용어로, 보통 동사가 아닌 명사로 쓰인다. 깐은 ‘주는 사람’ 혹은 ‘주는 행위를, 텍은 ‘받는 사람’ 혹은 ‘받는 행위를, 그리고 깐애크은

주고 받음을 동시에 선호하는 자를 지칭한다. 여성 간 성관계 맥락에서 삽입하는 위치에 있는 자는 성적 자극을 직접적으로 얻기 어렵다고 여겨지며, 삽입을 받는 자가 더 큰 쾌락을 얻는다고 인식된다. 따라서 '깍'은 단순히 성적 행위로서의 삽입이라기보다 "즐거움을 주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고, 이는 부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연구 참여자들 역시 공통적으로 부치와 깍의 속성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개비는 "아무튼 부치라고 함은 이런거죠. 이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만족시켜주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 뭔가가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온택부치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에 따르면 형용모순 아닌가. 온택부치? 그런 거 있을 수 없어"라고 말하며, 부치가 상대의 만족을 통해 기쁨을 얻는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이어 연구자가 "부치니스하고 섹스 포지션에서 주는 역할하고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라고 질문하자, 지안은 "아주 많이. 그래서 실제로 펌 분들이 이렇게 부치들을 볼 때 그런 거를 원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기대하지 않을까요"라고 답하며, 펌들이 부치에게 '깍'을 기대하고 욕망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치가 깍을 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일 뿐이라는 인식이 드러난다.

수키 또한 "깍엔틱으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펌은 당연히 텍을 좋아하잖아요. 부치는 깍을 좋아하고 물론 깍엔틱을 모두 한다 해도 어떤 것 이든 깍이 더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부치를 '깍을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깍'이라는 개념을 성적 위치뿐 아니라 "그 어떠한 형태"의 주는 행위로 확장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참여자들은 '깍'을 성관계에서의 삽입에만 국한하지 않고, '주는 행위 전반'을 가리키는 의미로 확장해 사용하였다. 강은 "근데 여자친구가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는 깍 잘 주잖아. 전반적인. 그러니까 섹스 포지션이 아니라 그냥 살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해주고"라고 진술하며, 깍이 삶 속 전반에서 상대에게 무언가를 제공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키는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깎’이라는 표현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어느 한쪽이 깊이 있는 사고를 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 다른 한쪽이 논리를 정리해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처럼 ‘깎’은 성적 맥락을 넘어 배려·매너·인지적 도움까지 포괄하는 ‘주는 존재’의 특성을 함축하며, 부치 정체성을 설명하는 핵심 범주로 자리 잡는다.

2) 부치의 경계 작업

(1) 윤리적 남성성의 기준 설정

그러나 부치 정체성이 ‘주는 성질’과 ‘특유의 스타일’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든 부치가 공동체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기피의 대상이 되며, 부치로 온전히 수용되지 못하고 돌출된 존재로 호명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한남 부치’ 혹은 ‘가부장 부치’라는 낙인이다. 이들은 레즈비언 공동체 안에서조차 마치 시스젠더 이성애자 남성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며, 성차별적이고 반페미니즘적인 태도를 재현한다고 인식된다. 다시 말해, 부치가 남성성을 전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가부장적 권력과 결합하는 순간, ‘부치다움’은 긍정이 아니라 거부와 배제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낙인의 등장은 한국 사회 전반에서 남성성이 어떻게 규범화되어 왔는가와 긴밀히 맞물린다. 한국에서의 헤게모니 남성성은 단순한 성별 수행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이성애 남성이라는 국가적 위치와, 생계를 책임지는 경제적 능력이라는 가장의 역할이 결합된 형상으로 구축되어 왔다(김엘리, 2014). 다시 말해, 군사적 남성성과 경제적 남성성이 중첩되며 ‘정상적 남성성의 기준을 형성해온 것이다(김엘리, 2020). 이러한 맥락 속에서 2010년대 중반에 온라인에서 전개된 페미니즘 운동은 가부장적 남성을 비판적으로 거울 삼아 ‘한남’이라는 용어를 확산시켰고,

이는 곧 한국 사회에서 헤게모니 남성성을 지시하는 유효한 언어가 되었다. '한남 부치'라는 명명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남성성 규범을 부치의 맥락 안에서 전유·모방할 때 발생하는 긴장과 비판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한남'이라는 명칭이 정착하기 전, 유사한 성격의 부치들은 '왕부치'라 불렸다. "강부치 = stone butch = 왕부치: 집에 도착했을 때 된장찌개 끓여놓고 기다리는 여자가 이상형인 부치"(레인보우 링, 5호, 2011)라는 정의는 이들이 지닌 가부장적 성격을 드러낸다. 이후 '한남'이라는 용어가 확산하면서, 부치 중에서도 헤게모니 남성성을 모방하거나 여성혐오적 태도를 내보이는 이들이 '한남 부치' 혹은 '가부장 부치'로 명명되었다. 이들은 여성을 위하는 듯 보이거나 실제로는 여성숭배나 성녀/창녀 이분법에 기대어 여성을 차별적으로 대하거나,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는 태도를 보인다.

연구 참여자 수키는 이러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부치가 남성성을 그대로 답습하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는 "제가 그 남성성을 싫어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남자들 중에 남성성이라는 변명으로서 행해지는 범죄까지 안 가도 굉장한 불편함이 있어요. 남성성을 특권화하고 디폴트화하고 그 남성 집단 안에서 사용하고 남용하고 남성성 남용. 그리고 남성성이 저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왜 다르다고 생각하냐면 부치성은, 저는 레즈비언이 남성을 답습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만약 그렇게 그게 사실일 수 있어도 그게 그 지향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부장 부치 같은 그런 한남 부치 같은 쪽으로 절대 가면 안 되고 저는 그리고 그런 저는 당연히 남자랑 진짜 한남 부치와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나봤을 때 사람을 둘 다 만나본 사람으로서 진짜 달라요"라고 진술하였다. 수키는 남성성 자체를 해로운 성질로 단정하지는 않지만, 부치의 남성성은 반드시 '해로운 남성성'을 제거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해로운 남성성이란 여성을 과도하게 대상화하거나 소유물로 전유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데이트 폭력은 특정 성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연인 간의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하예지·서미경, 2014)으로 정의되는 만큼 레즈비언 관계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레즈비언 사회에서는 이러한 수평적이지 못한 관계를 비판하기 위해 ‘한남’ 혹은 ‘가부장’이라는 부정적 수식어가 사용된다. 이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부장제 속 남성의 성차별적 행위에 빗대어 경계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이서는 이러한 부정적 낙인을 강조하기 위해 ‘한남 가부장 부치’라는 호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다. 그의 일화 속 ‘한남 가부장 부치’는 스스로를 남성 가부장의 위치에 놓고 상대 여성을 종속된 소유물처럼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실제 남성-여성 관계가 아니라 레즈비언 연인 관계이며, 따라서 ‘한남 가부장 부치’는 실제로 남성 가부장의 사회적 권력을 획득하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한남 가부장 부치’는 가부장적 남성을 패러디하지만 동시에 철저히 실패하는 패러디로서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

이를 종합하면, 레즈비언 공동체 내에서도 비판받는 특정 행위양식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한 개인이 부치의 수행적 특징과 스타일을 지녔다고 해서 반드시 긍정적으로 부치로 인정받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스콘은 ‘한남 부치’라는 용어가 생겨났다는 사실 자체가 부치와 한남 부치를 분리된 존재로 구분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고 본다. 그는 “그런데 저는 되게 긍정적인, 한남 부치는 있지만 한남 부치라는 말이 생겼다는 게 원래 부치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개념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소수의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치라는 존재와 개념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라고 말하며, 오히려 부치의 긍정성을 강화하는 자정적 현상으로 이해하였다.

헬버스탐(1998/2015)은 여성의 남성성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남성성의 구성적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동시에 남성성이 권력·지배와 결합할

때의 위험성도 경계한다. '한남 부치'에 대한 공동체의 비판은 헬버스탐이 말한 "윤리적 남성성(ethical masculinity)"의 기준을 적용한 자정 작용으로 읽을 수 있다. 즉, 레즈비언 공동체는 남성성을 전유하되 "돌봄·취약성·비지배"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암묵적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

(2) 부치 규범의 위반

부치가 '고정되지 않는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부치가 특정한 규범을 따라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위반과 협상을 통해 실천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레즈비언 하위문화에서 비롯한 '스톤 부치'는 반드시 펌을 욕망하며, 잠자리에서의 애무를 거부한다는 특징을 지녔다고 이해되었으나, 오늘날의 부치는 이러한 견고한 규범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위반을 통해 자신을 실천한다.

예컨대 연구 참여자 망고는 스스로를 '가짜 부치'라고 소개하는데, 이는 타인이 기대하는 전통적 부치 규범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제가 좀 뭐랄까 근데 저도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저를 좀 가짜 부치라고 소개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왜냐면 일단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치한테 기대하는 걸 제가 좀 못해줘서. 힘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펌들이 뚜껑을 따줄 정도로 제가 힘이 약하거든요. 음. 어. 그냥 제가 먼저 가짜 부치예요 라고 속이고 들어가는 게 그 부치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의고 부치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럴 때 더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흔히 부치에게는 다른 여성을 극진하게 대접하거나 배려하는 모습이 기대되지만, 망고는 자신의 친절은 연인에게만 한정하고 싶으며 모든 여성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버겁다고 말한다. 따라서 스스로 부치임을 자각하면서도, '가짜'라는 접두사를 덧붙임으로써 전통적 규범을 수행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인성 또한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부치 규범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느낀 경험을 공유하였다. 그는 “근데 뭐지 그래서 되게 약간 처음에 시장에 내던져졌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그게 되게 컸어요. 그 바이섹슈얼로 정체화를 했을 때도 뭔가 그러니까 나는 작고 마른 체형이니까 뽀뽀로 포지셔닝하는 게 더 잘 팔리는 거예요. 차라리 좀 이렇게 단발 이렇게 하고 화장도 좀 이렇게 하고, 아주 아주 여자 옷을 입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 게 실제로 부치인 파트너도 이렇게 있었고, 그러다가 하지만 그런 걸 더 이상 안 하게 되고 제가 난 부치구나 부치로 충분히 받아들여지는구나. 꾸부라는 그거를 알게 되고 그러면 나는 꾸부로 이제 포지셔닝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꾸부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 지난 날들을 돌이켜봤을 때 너무나 저는 꾸부였던 거죠. 스냅백 이렇게 뒤로 쓰고 남자 아이돌 춤추고, 으르렁 추고 엑소 으르렁 추고 스냅백 이렇게 진짜 제가 스냅백 환장해가지고 그때 엄청 모으고 그랬었거든요. 난 꾸부네. 나는 확실히 나를 포지셔닝했어”라고 진술하였다. 인성은 처음에는 자신이 부치 규범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꾸러기 부치’라는 용어를 알게 되면서 자신이 충분히 부치로 인식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수키 역시 꾸러기 부치가 자신의 정체성을 잘 설명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좀 약간 순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장난꾸러기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게 있고 좀 배려도 그냥 딱 적당히 하는. (중략) 근데 좀 순해야 되는 것 같아요. 꾸러기 부치들은, (중략) 너무 자기주장이 강하거나 그러지 않는 사람이 저는 꾸러기 부치가 좀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좀 순한 게 좀 있죠”라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주도적이거나 강한 리더십을 갖기보다는 ‘순하고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은 성향을 지니기에, 발랄하고 캐주얼한 스타일을 특징으로 하는 꾸러기 부치 정체성과 부합한다고 느낀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전통적인 ‘스톤 부치’ 규범은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끊임없이 위반되고 변

주된다. 다시 말해, 부치는 고정된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규범의 균열과 위반 속에서 실천되는 수행적 정체성임이 드러난다.

3) 부치의 존재론적 재배치: 원본 없는 남성성

부치가 흔히 '남자를 따라하는', '남성적인 레즈비언'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정의를 단순히 모방의 패러디로 수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남자가 없는 남성성, 즉 남성과 동일시되지 않는 남성성을 전유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남성성의 원본이 남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연구자가 “부치를 개인적으로 다시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하고 싶으신지?”라고 질문했을 때, 인성은 “근데 정말 돌고 돌아 돌고 돌아서 다시 그냥 남성적인 레즈비언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의 진실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돌고 돌아 이게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거가 돼서 지금은 부치? 남성적인 레즈비언 남자 역할을 하는 레즈비언이 오히려 제일 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라고 답했다. 그는 과거에는 “부치=남자 역할, 펌=여자 역할”이라는 설명은 이성애중심적이고 뻣은 설명”이라고 거부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돼서 그때 진짜 남성적인 남자를 보면은 진짜 부치다. 진짜 참부치다”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성은 결국 부치가 남성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정의하는 것이 부정확해 보이더라도, 수행적으로 구성되는 여성의 남성성을 설명하기에는 가장 진실에 가까운 정의라고 인식하였다. 다시 말해, 인성에게 부치는 남성을 모방하는 패러디가 아니라, 남성성 자체를 재구성하는 실천으로 이해된다.

망고 또한 유사한 고민을 드러냈다. 그는 “부치식인 펌들은 남성적인 레즈비언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나는 부치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부치다운 여자를 좋아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사실 주류사회에 저를 어필하거나 설명할 때 남성적인 레즈비언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들이 어떻게 부치다운 여자라는 말을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저도 이십대 초반에는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고 되게 많이 애썼는데. 적절한 단어라는 게 있나? 제 여친이 언어학 전공인데요. 그냥 듣다 보니, 언어학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적절한 단어를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화적으로 이해되는 단어가 제일 순위인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날 이해시키기 제일 쉽고. 그렇다면 그걸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망고에게 ‘부치’라는 단어만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것은 직관적이지 않고, 오히려 “남성적인 레즈비언”이라는 표현이 문화적으로 이해 가능하며 효과적인 설명이 된다. 그 과정에서 그는 ‘남성적인 레즈비언’이라는 정의를 통해서조차 남자가 원본이 아닌, 남자 없는 남성성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이렇듯 연구 참여자들의 발화는 부치가 단순히 남성을 모방하는 패러디적 존재가 아니라, 남성과의 동일성에서 벗어나 여성의 몸 위에서 재구성되는 독자적 남성성임을 보여준다. 부치는 남성성의 원본을 남성에게 두지 않고, 수행적으로 창출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4. 나가며

본 연구는 한국 레즈비언 문화에서 ‘부치’라는 범주가 어떻게 형성·재현·수행되는지를 탐구하였다. 1960~70년대 ‘바지씨’에서 1990년대 ‘부치-뽀’의 정착, 그리고 2010년대 중반 이후 ‘긴머부’, ‘티부’, ‘꾸러기 부치’와 같은 세분화된 명명의 등장까지를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검토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부치 수행의 구체적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치는 단순히 ‘남성적인 외모를 한 레즈비언’이라는 협소한 정의로 환원될

수 없으며, 외형적 표지를 포함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관계적 실천과 감각의 층위에서 구성되는 복합적 범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의 증언은 부치다움이 외양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부치처럼 느껴지게 하는' 수행으로 인지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짧은 머리카락이나 남성복 같은 외형적 표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먼저 손 내밀기', '위험과 수고를 선제적으로 감당하기', '상대의 안심을 보장하기'와 같은 관계적 기술, 즉 '애티튜드'가 부치다움을 결정하는 더 큰 요소로 작동했다. 이러한 태도는 성적 관계에서도 '깍'의 윤리, 즉 상대의 만족을 우선하는 원칙으로 이어지며, 과시적이거나 도구화하는 일부 이성에 남성성과 뚜렷이 대비되는 대안을 제시한다. '긴머부'의 존재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외형적으로는 전통적 부치 표지를 갖추지 않았지만, 애티튜드와 깍의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부치로 인식되고 정체화된다. 역으로, 짧은 머리카락과 남성복을 갖췄더라도 '한남 부치'로 비판받는 경우는 가부장적 태도 때문이다. 즉, 외형은 부치를 인지하는 하나의 단서일 수 있으나, 그것이 부치다움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부치다움은 외형과 태도가 함께 작동하되, 태도가 더 결정적일 때 성립한다.

또한 '머쭈' vs '부치' 논쟁은 단순한 용어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 정치의 최전선임이 드러났다. '머쭈'는 부치-핼 정치를 우회하며 여성 범주 안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전략인 반면, '부치'를 고집하는 것은 역사·욕망·관계성을 호출하며 차이를 긍정하는 선택이다. '긴머부'의 등장은 외형 규범을 유연하게 만들고, '한남 부치' 비판은 가부장적 남성성의 경계를 적극적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명명의 분화는 부치가 고정된 범주가 아니라 끊임없이 협상되고 재정의되는 살아있는 실천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이론적 기여를 한다. 첫째, 젠더 수행성 이론을 외형 중심에서 관계 설계 중심으로 확장했다. 버틀러(Butler, 1990; 1993)는 젠더가 반복된 수행의 효과라고 말했으나, 주로 외형적 표지(옷, 몸짓, 말투)에 주목했다. 본 연구는 한국 부치 사례를 통해, 외형적 수행도 중요하지

만 “관계 장면을 어떻게 설계하고 유지하느냐”가 젠더 인식에서 더 결정적임을 보여준다. ‘에티튜드’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위험을 선제적으로 인수하고 상대의 안심을 보장하는 관계적 기술이며, ‘깁’은 성적 행위를 넘어 인지 노동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돌봄의 윤리다. 이는 세지윅(Sedgwick, 2003)의 ‘touching feeling’ 개념, 즉 젠더가 언어적 선언이 아니라 느낌의 구조로 작동한다는 통찰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부치다움은 “나는 부치다”라는 발화나 짧은 머리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안심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만드는 장면 연출의 효과다.

둘째, 레즈비언 공동체가 남성성을 단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적 남성성을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본 연구는 한국 레즈비언 공동체가 남성성을 선별적으로 전유함을 보여준다. ‘한남 부치’라는 낱어는 단순한 배제가 아니라, “어떤 남성성은 안 되고, 어떤 남성성은 되는가”를 집단적으로 정의하는 경계 작업(boundary work)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거부한 것은 여성을 소유물로 보는 태도, 과시적 권위주의, 여성혐오적 호모소셜이며, 지향한 것은 배려와 존중의 에티튜드, 상대 우선의 윤리, 비과시적 케어였다. 이는 할버스탐(Halberstam, 1998/2015)이 제시한 여성의 남성성 논의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다. 할버스탐은 여성의 남성성이 남성의 남성성을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구성적 일부라고 주장했으나, 본 연구는 여성의 남성성이 단지 남성 남성성의 거울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재구성된 대안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치 공동체는 “좋은 남성성”을 실험하는 장이며, 이는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 모두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남성성 자체가 문제인가, 아니면 특정한 방식의 남성성이 문제인가?” 부치의 에티튜드와 깁의 윤리는 남성성이 권력과 지배가 아닌, 배려와 존중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다. 셋째, 온라인 시대 퀴어 공동체의 명명의 미시정치학을 실시간으로 포착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긴머부’, ‘티부’, ‘한남 부치’ 등이 등장한 것은 단순한 신조어 유행이 아니다. 이는 정체성을 둘러싼 집단

적 협상의 흔적이며, 각 용어는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대표한다. '머쭈'은 부치 - 펌 정치를 우회하며 여성 범주 안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전략이고, '부치'를 고집하는 것은 역사·육망·관계성을 호출하며 차이를 긍정하는 선택이다. '긴머부'의 등장은 외형 규범을 유연하게 만들고, '한남 부치' 비판은 남성성의 경계를 적극적으로 설정한다. 이는 단순한 용어 사전이 아니라, 언어를 통한 정체성 재구성의 정치학이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이러한 명명이 집단적으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은, 디지털 시대 레즈비언 공동체의 자기 조직화 방식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레즈비언 공동체에 자기 정당화의 언어를 제공한다. 부치는 오랫동안 "남성 모방", "이성애 모방"이라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이론적 반박을 제공한다: 부치는 모방이 아니라 관계 설계의 윤리이며, 남성성의 해로운 측면을 제거하고 재구성하는 대안적 실천이다. 또한 '머쭈' vs '부치' 논쟁, '한남 부치' 비판 등 공동체 내부 갈등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논쟁은 단순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체성을 둘러싼 정당한 입장 차이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부치 정체성이 유연하고 다층적임을 보여줌으로써, 획일적 규범에서 벗어나게 한다. '긴머부', '꾸러기 부치' 등 다양한 변주가 가능하며, 이는 부치 정체성을 고정된 틀이 아니라 창조적 실천의 장으로 만든다. 본 연구는 부치를 고정된 정체성이 아닌, 외형·수행·느낌·관계가 교차하는 복합적 장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관점은 한국 레즈비언 공동체 내부의 자명명 전략과 젠더 규범 재구성의 방식을 함께 드러내며, 여성의 남성성이 꾸준히 삭제·주변화되어온 젠더 질서에 균열을 내는 가능성을 포착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트랜스젠더와 부치 정체성의 경계, 펌의 목소리와 육망, 그리고 계급·지역·세대에 따른 부치 경험의 차이를 더욱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김엘리. 2014. “불확실한 삶에서 움트는 신군사주의.” 『창작과비평』 165: 38-54.
- _____. 2020. “20~30대 남성들의 하이브리드 남성성.” 『한국여성학』 제36권 1호, 139-173.
- 루인, 정희성. 2018. “퀴어와 공간의 관계 재구성.” 『공간과사회』 28(1): 194-226.
- 하예지, 서미경. 2014. “데이트 폭력 인식과 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79-103.
- 이혜솔. 1999. 『한국 레즈비언 인권운동사』. 한국여성전전화 엮음.
- Butler, Judith, 1988. “Performative Acts and Gender Constitution: An Essay in Phenomenology and Feminist Theory.” *Theatre Journal* 40(4): 519-531.
- Smith, Elizabeth A. 1989. “Butches, Femmes, and Feminists: The Politics of Lesbian Sexuality.” *MWSA Journal* 1(3): 398-421.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Cartier, Marie. 2005. “A Theology of Corporeality Embodied in the Butch Femme Bar Culture of the 1950s and 1960s.” The Continuum Publishing Group Ltd.
- 코넬, R. W. 2013. 『남성성/들』. 안상욱·현민(역). 서울: 이매진.
- 헬머스탐, 주디스. 2015. 『여성의 남성성』. 유강은(역). 서울: 이매진.
- Rubin, Gayle. 2015. 『일탈: 게일 루빈 선집』. 신혜수·임옥희·조혜영·허윤(역). 서울: 현실문화.
- Butler, Judith. 1990. *Gender Trouble*. New York: Routledge.
- _____. 1993. *Bodies That Matter*. New York: Routledge.
- Sedgwick, Eve Kosofsky. 2003. *Touching Feeling: Affect, Pedagogy, Performativ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Abate, Michelle Ann. 2008. *Tomboys: A Literary and Cultural Histor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Faderman, Lillian. 1991. *Odd Girls and Twilight Lovers: A History of Lesbian Life in Twentieth-Century Americ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Nestle, Joan. 1981. “Butch-Fem Relationships,” 『Heresies』 12.
- 레인보우링 기획단. 2009. 『레인보우 링』 5호. 서울: 한국성적소수자인권문화센터.
- _____. 2011. 『레인보우 링 시즌3』 2호. 서울: 한국성적소수자인권문화센터.

전해성. 1996.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다양성.” 『또 다른 세상』 3호.

한채윤. 2009. “우리가 몰랐던 바지씨, 치마씨 그리고 부치와 팸의 어원.” 『레인보우 링』 5호.

닷페이스. 2017.7.21. “우리가 몰랐던 성소수자 여성의 역사 - 영화 〈불온한 당신〉 감독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IIWvDQW__9Y [검색일: 2025.8.30.]

_____. 2019.10.14. “70대 레즈비언 모임에 따라가 보았다.”

<https://youtu.be/JQt6183b6uA> [검색일: 2025.8.30.]

_____. 2019.10.30. “옛날 레즈비언은 어떻게 살았을지 기록하는 사람들.”

https://www.youtube.com/watch?v=gd_c1ZitIsc&t=248s [검색일: 2025.8.30.]

요다(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웹진기획팀). 2025. “이쪽 용어 총망라”.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웹진. <https://lgbtpride.tistory.com/1068> [검색일: 2025.8.30.]

한겨레21. 2025.8.19. “엄지훈 이 남자의 등장, 무척 반갑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856.html [검색일: 2025.9.1.]

Abstract

Interpreting “Butch” Performances among Young Korean Lesbians

Song, Wooji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how the category of butch is constituted through its meanings and performances in contemporary Korean lesbian culture. Reducing butch to the notion of a “masculine lesbian” is overly narrow, as the languages and practices circulating within lesbian subcultures reveal a much more layered complexity. The study first examines how female masculinity within lesbian communities has been represented in both Western and Korean contexts—from the naming of *bajissi* (a term used in the 1960s - 70s), to the introduction of the Western ‘butch’ terminology in the 1990s, and to the emergence of more differentiated labels in the mid-2010s. Research participants were primarily women in their 20s and 30s who experienced the discursive reconfiguration of lesbian communities and online feminism during the mid-2010s—a period marked by new naming practices and collective negotiations over identity, including the emergence of the critique of the “han-nam butch.” An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s shows that butchness cannot be determined solely by external markers such as short hair or masculine clothing. While appearance plays a role, butchness is more fundamentally produced through attitudes and relational ethics enacted in specific encounters—embodied in the gestures of care, reassurance, and respect known as attitude and give, which together generate the “felt effect” of feeling butch. This study makes three theoretical contributions. First, it demonstrates that butchness is not fixed by appearance or style but is a lived practice

sensed and enacted within relationships. Attitude and give reveal that gender performance operates not as a visible form but as an affective and ethical interaction. Second, the discourse of the “han-nam butch” shows that the lesbian community does not simply imitate masculinity but actively constructs an alternative masculinity grounded in the ethics of care. Third, the naming practices surrounding kkureogi butch (playful butch) and ginmeobu (long-haired butch) illuminate how queer communities organize and negotiate identity and relationality through language. These discussions suggest that butch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fixed identity but as a complex field where appearance, performance, affect, and relation intersect. Ultimately,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insight for academia and offers the lesbian community a language of self-legitimation and redefinition.

Key words: Butch, Lesbian subculture, Gender performativity, Korean lesbians, Female masculinity

- 투 고 일 : 2025년 9월 15일
- 최초심사일 : 2025년 9월 30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10월 14일